

GCF-ADB간 피지 물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2017.10.17., 나디 - 녹색기후기금(GCF)과 아시아개발은행(ADB)가 피지의 물관리 개선을 위한 주요 자금지원 협약에 서명하며, 피지 등 태평양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양 기관은 피지의 도시인 나디에서 사업 자금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사업활동 협약(FAA)을 체결함으로써 피지에서 시행 될 사업 투자금 2.22억 달러 중 GCF가 지원할 31백만 달러를 ADB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피지는 가뭄과 폭우로 도시의 물 공급과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GCF가 지원하게 될 이 사업은 인프라 중심의 적응 사업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악화되는 물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수도인 수바 지역의 강 상류에 물 공급을 늘리는 것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인한 예상 수혜자 수는 30만명 이상이다.

하워드 뱀지 GCF 사무총장은 이번 FAA 체결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피지가 국제기후대응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마침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번 서명식은 피지에서 열린 토론회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으며, 피지는 11월 6일에서 17일까지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장국이다.

하워드 뱀지 사무총장은 "태평양 도서국들은 저지대 국가로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슈에서 특수하다. GCF는 쿡제도, 피지, 나우루, 사모아, 솔로몬 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가를 위한 투자금으로 2.8억 달러를 이미 승인했다."

ADB는 GCF의 인증기구로 2020년까지 태평양 도서 회원국을 위한 기후 자금을 두 배 이상 증액해 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그로프(Stephen Groff) ADB 부총재는 ADB가 "피지의 물 및 위생 문제 개선을 위해 20년 이상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투자까지 고려하면, 2023년까지 피지의 물공급을 일일 4만 m³로 확대, 수바 가정의 98%에 식수 공급, 공중위생 서비스 네트워크에 4,500가구를 추가함으로써 중앙 하수도 시스템 접근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역] GCF and ADB sign agreement to help Fiji address its water challenge

COP 준비 회의에는 피지 총리와 GCF 공동의장도 참석했다.

ADB는 1966년 설립되었으며, 50년간 아시아 지역의 개발 파트너 역할을 해오고 있다. 회원국은 67개국으로 그 중 아태지역국은 48개이다. 2016년 ADB는 총 317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그 중 협조 융자 금액은 140억 달러이다.

.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and-adb-sign-agreement-to-help-fiji-address-its-water-challenge?inheritRedirect=true&redirect=%2Fwhat-we-do%2Fnewsroom%2Fnews-stories%3Fp_id%3D101_INSTANCE_tLw79zWwerZZ%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26_101_INSTANCE_tLw79zWwerZZ_delta%3D30%26_101_INSTANCE_tLw79zWwerZZ_keywords%3D%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dvancedSearch%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andOperator%3Dtrue%26p_r_p_564233524_resetCur%3Dfalse%26_101_INSTANCE_tLw79zWwerZZ_cur%3D2